

2018년 6월 20일

emerics@kiep.go.kr

각종 쓰레기 문제로 고통 받는 태국



©REU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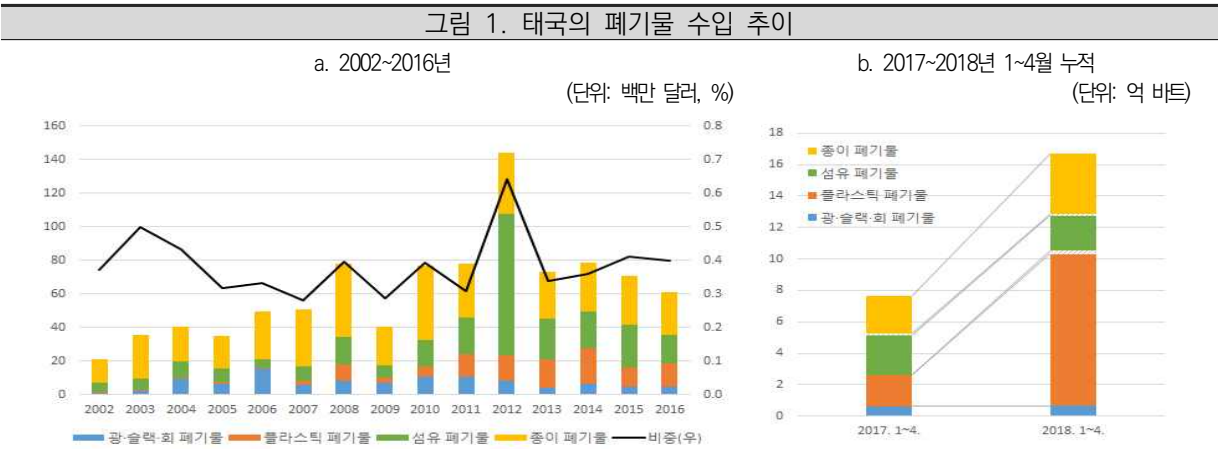
- 최근 생활폐기물로 인한 해양생물이 죽는 사건과 더불어 폐플라스틱, 전자폐기물의 불법 수입 및 처리현장이 발각돼 태국 사회에 충격을 주었음.
 - 5월 28일과 6월 6일, 태국 해안에서 비닐, 고무 등 생활폐기물을 가득 삼킨 고래와 거북이의 시체가 발견됨.
 - 5월 말에는 파타야 인근 램차방 항구에서 약 150톤의 전자폐기물 밀수 현장과 방콕 인근 랏 크라방에서 58톤의 폐플라스틱이 불법 수입되는 현상이 적발되었음.
 - 6월 2일에는 방콕 인근 사뭇 브라칸의 한 일반쓰레기 재활용 공장이 3등급 위험물질, 전자폐기물을 보유하고 밀수한 혐의로 고발당함.
- 태국은 비닐을 포함한 쓰레기 발생량이 많고 전자폐기물과 폐플라스틱을 수입하고 있어 최근 쓰레기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2017년 태국의 총 폐기물 발생량은 2,740만 톤으로, 31.1%가 재활용되었으며 42.7%가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돼 26.2%(718만 톤)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폐기됨.¹⁾
 - 그 결과 일부 폐기물이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 태국은 해양 쓰레기 6위 배출국으로 매년 500여 마리의 해양 생물이 해양 쓰레기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됨.
 - 정부는 전자폐기물 수입·처리 허브 및 W2E(Waste to Energy) 산업을 장려하고 있어 전자폐기물 및 플라스틱류 쓰레기 수입이 지속되고 있음.
 - 태국 정부는 전자 폐기물로 부터 광물을 추출하는 공정의 경제적 이익이 높다고 판단, 산업부의 관리 아래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약 53,000톤의 전자폐기물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생활 폐기물의 경제적 처리 방안으로 W2E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2017년 말 기준 15개의 W2E 발전소를 가동 중임.

1) 총 폐기물 발생량은 전년대비 약 1.26% 증가함. 전자 폐기물 발생량은 2016년 약 39만 톤으로 전체 유해 폐기물(약 61만 톤)의 약 65%에 달하지만 오직 7.1%만이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고됨.

- 범죄 집단과 연루된 밀수나 바젤협약의 약한 강제력, 국내법의 허점 및 FTA를 이용한 수입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남.²
 - 태국은 전자폐기물 및 중고전자기기 수입에 대한 강력한 규정이 존재하나 강한 법집행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그 외 중국의 폐기물 수입 전면금지 선언³ 후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표 1. ASEAN 국별 전자폐기물 규제·관리 현황											
재활용 전자제품 규제	수출	허용	허용	허용	불허	허용	허용	허용	허용	허용	허용
	수입	허용	허용	허용	불허	허용	허용	허용	허용	허용	불허
전자 폐기물 규제	수출	허용	허용	허용	불허	허용	허용	허용	허용	허용	허용
	수입	불허	불허	불허	불허	허용	허용	불허	허용	허용	불허
전자 폐기물 처리 지침		바젤	국내	불가	미상	국내	미상	국·바	국내	미상	불가
유인 설계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있음	미상	미상	있음
생산자책임재활용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적용	없음	적용	적용	없음	적용

자료: Study on E-Waste Management in ASEAN Countries(2016)



주: 여기서 다루는 폐기물은 각주 8의 중국정부의 금지품목을 기초로 함.
 b의 사선은 태국의 폐기물 수입 중 대한민국 수입을 나타냄.
 자료: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검색일: 2018. 6. 17), Thai Customs(검색일: 2018. 6. 17).

- **태국 민·관 모두에서 쓰레기 감축과 환경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됨.**
 - 20개가 넘는 기업 및 기관은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해 2027년까지 플라스틱 쓰레기 50% 감축을 목표로 한‘플라스틱 쓰레기 살인자’캠페인을 진행함.
 - 정부는 쓰레기 감축을 위한 정책과 함께 환경 보호에 대한 계획을 밝힘.
 - 의료서비스국은 10월부터 주립 병원에서 비닐 투약 봉투 사용을 금지할 계획을 밝혔으며 오염통제국은 먹는 물의 플라스틱 뚜껑을 제거할 계획을 알림.
 - 또한 환경 보호를 위해 단기적으로 전국에 있는 유해폐기물, 전자폐기물 및 재활용쓰레기 처리 공장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 중이며 장기적으로 환경과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일부 전자폐기물 수입의 금지를 고려중이라고 밝힘.
 - 그러나 정부는 전자폐기물 처리로 인한 경제적 이익으로 인해 전면 금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EMERiCs**

(작성: 김제국 연구원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서남아대양주팀)

2) 유해 폐기물의 국제적 이동을 통제하기 위한 협약으로 태국은 1998년 비준함. 강제력이 약하고 협약국 간 합의로 유해 폐기물의 이동이 가능해 바젤협약개정이 채택되었으나 태국은 비준하지 않음.
 3) Comm for Producer responsibility exporters regarding the proposed import ban and revised standards for waste being exported to China (www.360environmental.co.uk)